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제 62회 호남예술제

세계무대 활약 아티스트... 문화 백년대계 주인공들

“우리는 호남예술제 출신”

제 62회 호남예술제 개막
19일~5월 30일 광주학생교육문화관 등
무용·음악·국악·합주
미술·작문·만화·일러스트 부문
미취학 어린이 ‘새싹 그리기 축제’
6월 7~9일 그림 접수

‘예술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가 올해로 62회 행사를 치른다. 호남예술제는 1952년 창간한 전남일보가 지역 예술 꿈나무 발굴과 육성을 위해 창간 4년째 맞은 1956년 동방극장(옛 무등극장)과 서석초등학교에서 행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참여 인원만 58만명에 이르는 호남예술제는 광주·전남 뿐 아니라 명실상부 전국을 대표하는 종합예술제로 수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했다. 특히 의재 허백련, 오지호, 시인 김현승, 무용가 옥파일 등 유명 예술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예술제의 위상을 높였다. 변변한 문화 행사가 흔치 않았던 1970년대까지 호남예술제는 참가자들 뿐 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의 축제로 자리잡았다. 특히 옛 전남도청앞에서 광주공실 운동장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시가행진은 많은 이들의 기억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고 개막식은 10만명

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호남예술제가 키워낸 인재들은 전국에서 또 다른 인재들을 키워내는 교육자로, 예술가로 우뚝섰다. 또 젊은 예술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기량을 펼치고 있다. 제62회 호남예술제가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광주학생교육 문화관 등에서 열린다. 이번 경연은 무용(클래식 발레·창작 발레·현대무용·한국무용·재즈 등), 음악(성악·기악·실용음악·양상블), 국악(기악·성악·타악 등), 합주(합창·기악), 미술·작문·만화와 일러스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미술(회화·한국화), 작문(산문·시), 만화·일러스트(스토리만화, 캐릭터 등), 작문 부문 접수는 오는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된다. 경연은 초등부는 5월 24일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공원, 중·고등부는 25일 우치동물원, 만화·일러스트는 21일 남부대에서 열린다. 미취학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새싹 그리기 축제’도 오는 6월 7일~9일까지 그림을 접수 받는다. 부문별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art.kjmedia.co.kr)에 당일 날 공지하며 다음날 발행되는 광주일보 지면(문화면)에도 발표한다. 호남예술제를 거쳐 간 인물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클래식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젊은 연주자들이 많다. 제 60회 부조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

한 피아니스트 문지영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최고상을 수상했다. 또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 3위에 입상하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자로는 강숙자, 정애련, 박계, 조수현, 김애령, 김진숙, 김혜경, 서영하, 박행숙씨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이제 막 도약을 앞둔 어린 연주자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올해 세계적 명문 커티스 음대에 합격한 유지후(플루트)군을 비롯해 올해 예원학교에 수석 입학하고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 수확중인 남린(바이올리니스트) 등이 눈에 띈다. 무용 부문에서는 ‘한국 발레계의 대모’ 김성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호남예술제를 통해 꿈을 키웠다. 초중고 시절 5차례 최고상을 수상했던 김 교수는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입상한 한성우 등 수심명의 제자들을 길러냈다. 또 뉴욕에서 ‘WHITE WAVE-김영순 댄스 컴퍼니’를 이끌며 2001년부터 뉴욕을 대표하는 ‘뎀보댄스페스티벌’을 열고 있는 현대무용가 김영순씨도 호남예술제 출신이다. 또 무용계 출신으로는 서차영, 김화례, 임지형, 김화숙, 김미숙, 임지형, 박준희, 정희자, 박선옥 교수 등이 눈에 띈다. 그밖에 강영근·최영훈·배병우, 시인 고재중, 양성우씨 등도 호남예술제 출신이다. 문의 062-220-05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예술제에 참가한 송원초등학교 학생들의 관현악 합주

국립나주박물관 ‘마한문화아카데미’ 봄 강좌 6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국립나주박물관과 (사)나주박물관후원회가 6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마한문화아카데미’를 봄강좌를 운영한다. 올해는 ‘나주 고대문화 유적, 세계유산의 가능성을 본다’를 주제로, 마한 문화유산 활용을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또 ‘세계문화유산 익산의 백제 역사와

문화재’(조법중 우석대 교수), ‘세계문화유산을 기다리는-화산 운주사’(최영현 동국대 교수),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현황과 과제’(김희태 전남도 문화재전문위원) 등이 준비돼 있다. 그밖에 ‘백제 역사와 마한 역사의 전개과정’, ‘백제 역사 속의 영산강 유역’, ‘근대 미술 사조와 유럽의 박물관’ 등이 진행

된다. 현장 답사는 ‘세계문화유산 익산 미륵사지·왕궁리 오층석탑·익산쌍릉’(6월18일), ‘나주의 고대문화 유적’(6월8일)을 주제로 2회 진행한다. 수강생은 각 강의마다 전화(061-330-7826)로 60명 선착순 모집하며, 개별적 청강도 가능하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한편, 국립나주박물관후원회와 나누시는 국립나주박물관 행복학습센터를 열고 오카리나 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5월10일부터 7월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두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강인원은 15명이며 접수는 후원회 사무국에서 받는다. 상·하반기 40강 수강 완료 시(80% 이상 출석) 오카리나 2급 지도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문의 061-330-788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네가 떨어져야 내가 붙는다”



블랙 코미디 연극 ‘최종면접’

극단 ‘사람사이’ 19~23일 공동예술극장서 공연

저 사람을 떨어트려야, 내가 붙는다. 삭막한 경쟁 사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면접 현장이 아닐까. 직원 채용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때론 유쾌하게, 때론 날카롭게 풀어낸 블랙 코미디가 관객들을 만난다. 극단 ‘사람사이’가 연극 ‘최종 면접’을 19일부터 23일(평일 오후 7시45분, 토·일 오후 4시)까지 공동예술극장에서 공연한다. 조르디 갈세란 작을 송정우씨가 각색하고 연출한 이번 작품의 배경은 글로벌 회사 ‘데기아 코리아’ 영업팀장을 뽑는 면접 현장이다. 최종면접에 오를 강만석, 오병달, 이영애, 여성구 총 4명의 응시자는 오직 강한 개체만이 다른 개체를 물리치고 끝까지 살아

남는다는 다윈의 이론과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독특한 면접 방식을 마주한다. 일명 ‘그린홀름 방법론’이다. 첫 번째 미션은 응시자 4명 중 한 명은 ‘데기아 코리아’ 직원이니 10분간 토론을 통해 그 사람을 밝혀라 하는 것. 이렇게 면접은 시작되고 4명은 가짜 응시자를 알아내기 위해, 자신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토론하고 경쟁하면서 각자의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과연 누가 최종 합격자가 될 것인가. 이영환·최유정·송민중·송정우씨가 출연한다. 티켓 가격 일반 2만5000원, 학생 1만원. 문의 010-2054-42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 5회 송순 문학상 작품 공모

시·소설·어린이 문학
10월 16일까지 6개월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가사문학의 대가 면양 송순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지역문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송순문학상을 공모한다. 담양군과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설재록)는 올해도 담양 송순문학상 작품 공모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송순문학상은 담양 출신 면양 송순 선생의 문학 정신을 선양하고 한국 가사문학 발전과 지역문학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공모 분야는 ▲시(시조 포함) ▲소설 ▲어린이 문학(동시, 동화 포함) 등 3개 분야로 응모기간은 오는 10월 16일까지 6개월간이다. 대한민국 신인 또는 기성작가 누구나 공모에 참여 가능하다. 공모작은 담양을 소재로 하거나 담양과 관련된 인물 등과 관계된 창작품 중 미 발표작 또는 공모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2015.4.17~2017.4.16) 출간된 작품(운문 최소 5편 이상, 단편소설 최소 1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수상 이력이 없는 순수 창작품이어야 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2000만원의 상금이,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상패와 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응모작은 담양군청 문화체육과로 우편(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문화체육과)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1-380-280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정밀농업진흥청 지정 10분 거리입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